

지금 왜 동물인가?

글 | 표정훈(출판평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라고 하던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이되 이성적이기에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통 동아시아 사회에선 인간과 동물이 모두 기氣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은 가장 빼어난 기를 받았기에, 네 발로 땅을 지지 않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곧게 서게 되었다고 여겼다. 동서양에서 공히 동물과 인간의 공통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인간은 인간 아닌 것과의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하나였던 몰랄론이나 정령승배의 시대에서 벗어나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우리 출판계에서 동물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그것이 새로운 까닭은 우리가 잘 모르는 신기한 동물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니켈 로스펠스의 《동물원의 탄생》을 보자. 현대 동물원의 아버지 칼 하겐베크는 철책과 우리 대신 해자를 만들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울타리안에 이국 동물들을 풀어놓았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야생 상태에서 멸종되기보다 동물원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환상을 관람객들에게 심어주었다. 하겐베크 동물원은 나아가 아프리카, 아시아, 알래스카 등의 원주민들을 자연공원에 전시했다.

이 책은 동물을 넓은 의미의 타자他者로 설정하면서, 서양문명이 타자를 배제, 억압, 말살했던 역사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동물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붙잡아서 죽이는 인간의 입장을 역사적 방식으로 풀어보기 위해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에서 이 책의 주제가 동물 혹은 동물원이 아니라 인간임을 알 수 있다. 동물이라는 타자를 다루는 태도와 방식의 역사를 통해 인간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마크 롤랜즈는 《동물의 역습》에서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원초적 평등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동물의 권리도 인간의 권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동물에게도 인



간과 같은 마음과 감정과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고, 식용동물 사육, 동물실험, 동물원, 사냥, 애완동물 등의 여러 경우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의 나쁜 태도를 볼 수 있는지 말한다. "동물은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중심주의의 해체와 동물권의 확립을 주장하는 셈이다. 이 책은 윤리학의 주제 범위를 인간이 아닌 존재에까지 확장시키려는 서양 윤리학적·철학계 일각의 오랜 노력을 집약하고 있다. 《동물원의 탄생》이 타자로서의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역사적·실증적으로 규명한다면,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철학적·윤리적으로 재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물 존재의 위격(位格)을 높이려 한다.

한편 위의 두 책과 성격이 달리는 책으로 테즈먼드 모리스의 《인간 동물원》을 들 수 있다. 모리스는 현대 도시문명의 문제를 생물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진단한다. 예컨대 좁은 우리에 갇힌 원숭이가 폭력적으로 변해가듯, 비좁은 공간에서 인간은 점점 더 무자비해지는 경향이 있다. 본능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낙태와 살인, 자살 등으로 나타난다. 임신할 염려 없이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성행위 또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책의 요지는, 문명은 진보했지만 그에 적응할 생물학적 매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인간의 현실이 비정상적인 행동, 엽기적인 범죄, 약물 중독 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모리스의 책은 앞서 언급한 두 책과 달리, 동물에 대한 태도 문제나 그와 관련한 인간의 자기반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인간과 동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열심이다. 물론 인간이라는 동물의 합당한 지위와 현대 도시문명의 한계를 신랄하게 지적한다는 점에서, 이 책도 결국은 인간의 자기반성과 맥이 닿아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나 동물과 친한 인간이 화자가 되어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동물문학과

동물에세이가 있다. 아프리카 여행에서 야생 치타 가족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 이야기인 마토 바푸스의 《야생의 낙원 : 치타와 함께 한 나의 여정》, 지호출판사에서 펴내고 있는 '시튼의 야생 동물 이야기' 시리즈, 부제목이 '소년 제리가 들려주는 지중해의 작은 동물들 이야기'인 제럴드 더럴의 《나의 특별한 동물 친구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책들은 인간과 동물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저자의 실제 관찰이나 체험에 바탕을 두어 서술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제인 구달의 《인간의 그늘에서》나 최재천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등도 생물학이라는 학문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강하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책들과 궤를 같이 한다.

인간의 비인간성, 즉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태도를 인간이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존재들을 위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경향, 직접 대면 관계보다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익명의 소통 관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 인위의 세례를 거치지 않은 야생 혹은 자연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향수,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절대 숫자의 증가, 적어도 유전자 수준에서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같은 차원에서 거론되는 현실, 인간 사회만의 특수성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린 사회생물학의 대두, 자기동일성의 원리보다는 다수의 타자에 대한 승인을 강조하는 20세기 말 이래의 철학적 경향.

최근 우리 출판계에서 볼 수 있는 동물 관련 도서의 부각에는 대략 위와 같은 까닭들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런 까닭들 가운데 어떤 것은 일시적·특수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지속적·보편적일 수도 있다. 출판기획의 관점이라면 지속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되, 보다 특수하고 가까운 까닭들을 더욱 세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